연중기획 한국문화 대탐사 ① 한국인의 시간 미학

첨성대, 자격루, 분청사기 … 느림과 빠름의 조화가 빚은 완벽함

김종록 문화전문객원기자·작가
kimkisan7@naver.com

다시 바람이 분다. 계립 숲을 성큼성큼 걸어 나온 시원(始原)의 바람이다. 그 바람결에 말 울음소리가 들린다. 천마총에서 잠 깨어 일어선 백마는 천마다. 신령한 천마를 자작나무 수피(樹皮)에 가둔 옛 장인은 시간의 비밀을 깨우친 현자였던가 보다. 이렇듯 천년의 세월을 능히 치달려올 수 있었으니까. 자작나무는 멀리 북국의 신화를 잉태한 타이가 숲의 귀족. 금빛 햇살 찬연한 남방으로 내려와 문명을 일으킨 북방의 자손들은 본향의 숲을 기억하며 자작나무 껍질에 천마를 그렸다. 천마는 어느새 동쪽으로 치달려 청마(靑馬)의 꿈을 머금었다.

지언이의 바이올린 연주가 끝났다. 천마의 흰 갈기를 지닌 할아버지가 박수 친다. 할아버지의 두 눈에 물기가 어린다. 저 어린 것이 헤쳐가야 할 앞길이 걱정이라는 우환의식(憂患意識).

"지언아, 음악 공부 하기 힘들지? 일주일에 6일은 엄마 말대로 잘 따라 하고 나머지 하루는 엄마 말과 정반대로 해!"

동안(童顔)의 거장이 뜬금없이 일탈을 주문한다. 지언이 엄마를 비롯한 모두가 뜨악한 표정이다. 지언이는 엄마 눈치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매일 연주 연습만 하라고 하잖아!" 그 사품에 모두가 웃는다.

윤광조 선생(69)의 능청스러운 주문은 어언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맥락이 닿는다. 서양화가 장욱진(1917~90)은 당시 한국 화단의 전설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K팝 스타 싸이만큼이나 인기 절정이었다.

"내가 무명이던 서른 살 때, 창공의 별 같은 장욱진 선생을 모시고 함께 전시를 했어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지. 그때 물었지요. 작업이 잘 안 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가랑이 사이로 세상을 보지. 거꾸로 보는 거야. 자네도 그렇게 해 보게.' 일탈이 예술의 숨통이야. 평생 하려면 도중에 물리지 않아야 해. 가끔의 일탈은 작업의 지속성을 담보해. 작업의 지속성만이 비약을 불러와요. 젊었을 때는 스케치대로 안 된 그림을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야냐.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지로 간 거야. 그게 예술의 묘미야. 작업 자체가 생명체야. 이 나이가 되면 삶의 리듬을 알아. 리듬이 예술임도 알아."

거장이 파안대소(破顔大笑)한다. 그릇 깨듯 얼굴을 깬다는 그가 소리 내 웃어젖힌다. 그게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이라 한다. 천진스러운 지언이도 따라 웃는다. 반세기 동안 흙을 주물러 온 윤광조 선생의 손길은 어느덧 지언이를 끌어안고 첨성대보다 더 높이 추켜올리고 있었다.

신라문화체험장에서 선덕여왕이 썼을 법한 금관을 얹어 쓴 박지언 어린이(11)는 바이올린 영재다. 네살 때 언니 따라 취미로 잡은 바이올린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소년 한국일보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서울시향·성남시향 협연, 작년 4월 두바이 평화 뮤직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두 예인은 1400년 전 선덕여왕이 세운 첨성대 앞에서 한 갑자 나이 차이를 잊고 평생 친구가 되기로 언약한다.

윤광조 선생은 30년쯤 전부터 물레를 안 쓴다고 했다. 도공이 물레를 버리다니 될 법한 얘긴가.

"기득권을 버렸어요. 물레를 안 쓰니 새로운 조형이 나왔어요. 흙 판을 떡 주무르듯 손바닥으로 쳐서 그릇을 만들고 꾸들꾸들 말린 다음 굳혀서 형태를 완성했지요. 원통형에서 벗어나 삼각, 사각이 나왔어요. 흰 화장토를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어요. 지푸라기로 자유롭게 그림도 그렸지. 전통을 관통하여 모던함이 탄생한 거야. 흔돈 속의 당당한 질서를 자연스럽게 잡아챈 거요. 한국인의 바로 이런 일탈적 미적 감각에 세계인이 열광해요."

문득 화담 서경덕(1489~1546)의 무현금(無絃琴)이 떠올랐다. 줄 없는 거문고라야 공·상·각·치·우 오음계에 갇히지 않은 우주 달력을 동지 때 받아다 썼다.

> 유·무형 전통유산 속 시간은 첨성대 비추던 하늘의 별처럼 자격루 물처럼 느릿느릿 순환

광조다. 최순우는 당신 스승이었던 고유섭의 호, 급월당(汲月堂, 달을 긷는 집)을 윤광조에게 주었을 만큼 아꼈다.

분청사기에는 도공의 붓질이 '시간의 켜'로 고여 있다. 그릇을 빚고 화장토를 바른 흔적이 영원한 현재성으로 머물러 있다. 그릇을 만들며 참선을 하다 보니 세상만사가 모두 음률 아닌 게 없더라는 윤광조 선생은 작품에 곧잘 음악적인 요소를 담는다. '음률'이라고 이름 붙인 작품도 많다. 솔한 세월 해와 달과 뭇별들을 머리에 이고 흘러온 첨성대도 하나의 음률이다. 그 앞에서 바이올린 선율을 선사한 지언이도 온통 음률이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의 강물 속으로 음률처럼 흘러들어간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 계립 숲가의 첨성대에서 별을 관찰하며 살던 그 옛 시절은 태평세월로 기억된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며,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철학자이자 미학자였던 루카치의 언설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다. 신라 첨성대에 서린 낭만적 '시간의 켜'는 조선 자격루에 이르러 정치색을 띤다. 명나라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다. 현실 정치는 낭만을 조롱한다. 이웃 국가 간의 분쟁은 까마득한 신화까지도 스스럼없이 조작한다. '신화의 우물에 정치의 독을 풀어'(신화연구가 김선자 박사) 자국의 문화만을 확충하려고 획책한다. 그 순간 문화는 독이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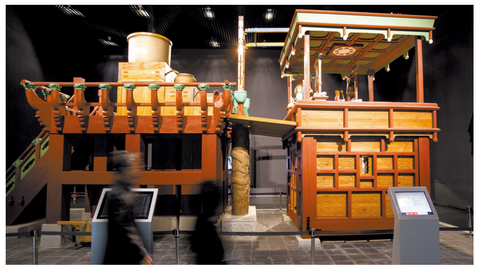
세종대왕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성군이다. 15세기 중화문명 천하에서 대왕은 조선의 하늘을 열고자 했다. 장영실 같은 과학자를 중국에 유학 보내 '조선 천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복궁 경회루 후원에 간의대(簡儀臺)를 만들고 자체 기술로 제작한 천문관측기구 혼천의로 조선의 하늘을 관찰했다. 중국 북경이 아닌 조선 한양의 위도와 경도로 천문을 관측한 것이다. 이로써 오차 없는 조선의 달력을 만들 수 있었다. 그전까지는 황력(皇曆)이라 해서 중국 황제가 내려준 (중종 31)에 만든 것이다. 국립 고궁박물관에는 2007년 복원한 자격루가 움직이고 있다. 장영실이 처음 만든 지 573년 만이다.

"오늘날 한국인에게 시간은 일직선상의 1, 2, 3, 4, 5…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로 양분된다. 과거와 현재는 현실에서 뒤엉켜 정체되지만 미래는 막연하다. 막연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다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지면 무리한 행동으로 후닥닥 해치우며 보상하려 든다. 그렇게 매 순간 위태로이 점프한다."

> 분청사기도 기다림 담아내지만 표면 처리는 물찬 제비처럼 해야 '시간의 켜'는 그렇게 쌓이는 법

뇌과학자 김대식 KAIST 교수의 통렬한 비판이다.

윤광조 선생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작업해 한 해 10점 정도의 작품을 얻는다. 그가 얻는 건 그릇만이 아니다. 세월에 관리당하는 자신의 초상을 발견하고 넉넉한 웃음



국립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자격루. 그것에 담긴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첨단 정신은 실종되고 600여 년이 지난 2007년 겨우 복원됐다. 조용철 기자

그릇을 만들며 참선하다 보니 세상만사가 모두 음률 아닌 게 없더라는 윤광조 선생. 그는 작품에 곧잘 음악적인 요소를 담는다. 세월에 관리당하는 자신의 초상은 넉넉한 웃음이란다. 조용철 기자

까지 얻는다. 그래서 거장은 말한다. 세월을 관리하려 들지 말라고. 그러면 세월이 화낸다고. 그 화는 오롯이 자신의 몸 안에 기억된다고.

경주시 안강읍 바람골 아래 옥산 연못처럼 그의 시간은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꽃봉오리 같은 산들을 그윽한 눈길로 조망하며 읊조린다.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무심(無心)이라고 하면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마음이 없는데 대체 무엇을 하라 싶었단다. 이제 보니 무심의 참뜻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것이더라. 달관한 선객답다.

분청사기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변용이 자유로워 매우 모던하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가지와 열매 또한 풍성할 수 있다. 바람골 선객의 우려처럼 고작 10%밖에 남지 않은 우리 것을 더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석과불식(碩果不食), 씨앗으로 쓸 과일은 끝내 먹어치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고난의 연대를 헤쳐 오면서 억눌려 왔던 한국인의 예술혼이 활짝 꽃피울 수 있다.

르네상스 코리아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못다 펼친 원대한 꿈에 대한 후손들의 열망이다.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고 문화의 힘을 세계 속으로 뻗어갈 일이다. 바이올린 영재 지언이의 꿈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다. 윤광조 선생은 지언이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옹골차게 여물기를 바랐다. 이름을 날리는 연주자가 되기에 앞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기를….

김종록 문화국가연구소장. 밀리언셀러 『소설 풍수』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등의 소설과 산문집 『바이칼』 『근대를 산책하다』가 있다. 최근에 장편소설 『붓다의 십자가』1·2를 펴냈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문화 내비게이션' 제공

안성규 기자, 김석근 박사
askme@joongang.co.kr

'한국문화 대탐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 뒷뜰에서 경희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소설가 전성태, 김보아 아산재단 인문센터 연구원, 김다은 추계예술대 교수,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종록 위원, 김석근 아산재단 인문연구센터장, 이승률 박사(인문센터 객원연구원), 안성규 에디터. 최정동 기자

#장면 1=덕수궁 돌담길 내벽 가까이엔 자격루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다. 거기서 시청 쪽으로 눈길을 옮긴다. 20m쯤 앞에 1370년 심었다는 주목이 있다. 오랜 세월을 덮어쓴 노거수가 바람 맞으며 서 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은 저만치에 또 있다. 노거수들은 역사의 목격자들이다. 이 노거수들은 기억하리라. 본시 이 터는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었다. 임진왜란 뒤 선조의 궁이 됐고 광해군의 잠저(潛邸)였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이곳은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종 말년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고 중화전 같은 전각들이 들어서는 구한말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중화전 앞, 한국 젊은이들과 중국 관광객들로 떠들썩한 마당. 거기서 본 주변 풍경은 온통 빌딩 숲이다. 상대적으로 자격루의 자태는 초라하기만 하다. 한때 세종과 장영실의 결기로 꿈틀거렸을 자격루의 구리기둥들! 지금은 누각 기둥 사이에서 양 어깨를 움츠리고 서 있다. 그 옆에 있는, 오늘날 다연장포의 기원인 신기전. 당시 최첨단 무기 역시 초라하게 전시돼 있다.

#장면 2=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3년 3분기 한류동향 보고. 그 가운데 성과 부분은 한류의 파급 효과로 인한 긍정적 영향들을 모은 것이다. 한류 콘텐트와 국산 화장품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2012년 한국 콘텐트 수출은 52억3000만 달러, 전년보다 8.9%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해외 매출도 10억6700만 달러로 30% 이상 늘었다.

한·중·일 3국 중 화장품 수출의 경우 한국과 중국·홍콩이 늘었고 일본은 약간 빠졌다. 막걸리도 중국 길을 확장 중이다. 전년 대비 막걸리 수출은 23.84%, 소주는 27.56% 늘었다. 같은 한류 지표 가운데 의류는 14.9% 감소했고, 한류의 대명사 김치도 2013년 3분기는 전년 대비 19% 줄었다. '관광 한류'의 성과로는 서울 강남구의 한류 스타 거리 조성, SM엔터테인먼트의 'SK엑스아티움' 건설, 한국 면세점에서의 중국인 큰손 등극이 꼽혔다.

위의 두 장면은 삐걱거리고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 전통과 현대를 보여주는 스냅 사진인 셈이다.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허술하게 취급된다. 오늘날 한국문화의 창조성은 돈으로 환산된다. 미래를 보되 현실에 약하고, 그 미래마저 돈으로 연결 짓는 게 우리 문화의 현주소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센터장 김지윤 연구위원)가 201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응답자의 69.7%가 "우리 문화에 관심이 깊다"고 했다. 특히 40~50대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비슷하게 69%가 "한국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역시 40~50대의 인지 수준이 높았다.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4.9%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한글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이는 94.7%에 달했다. 이런 태도는 이념 성향,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모순이 관찰된다. 많은 응답자들은 연령·지역·직업·학력·소득·이념 성향·지지 정당·대통령 지지도에 관계없이 "문화활동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문화생활과 관련된 모임을 지속하는 이는 59.5%,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비율은 62.4%였다.

'문화에 관심이 많고, 문화를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직접 활동 정도는 낮았다. 문화 실천, 혹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정열은 관심보다 못하다는 의미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문화에 대한 관심·인지도에 비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적극적인 문화시민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SUNDAY의 '한국문화 대탐사' 시리즈에 참여하는 아산재단 김석근 인문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겸 아산서원 부원장)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세계를 향해서 한국의 경험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이제 한국의 정체성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한국은 어떤 나라이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문화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문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 춤·굿·복식·영화·드라마·건축·음식… 시대·장르 가리지 않고 소개 선정

문화정보를 얻는 활동도 자기 평가와 실제 활동 사이엔 거리가 있었다. 응답자의 77.7%가 '매체를 통해 문화 정보를 자주 접한다'고 했으나 독서 비율은 56.6%에 그쳤다. 문화적 사고는 독서를 통한 생각의 발전 과정을 필요로 한다. 문화를 융성시킬 수 있는 저변의 힘이 약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선진 50개국 중 한국의 '현대문화 지수' 9위, '전통문화 지수' 29위)를 재확인한 셈이다. 숭례문의 부실 복구에 대한 국민의 깊은 관심과 분노는 전통문화에 대한 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현실 세계에서는 유행하는 현대문화 현상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바로 이런 문화인식의 괴리와 간극을 좁히자는 게 '한국문화 대탐사'의 취지다. 중앙SUNDAY의 '대탐사'는 세계화를 꿈꾸는 한국문화가 세계를 향해 어떤 가치와 문화콘텐트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다. 문화현장을 찾고 문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것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그에 담긴 철학 또한 탐구 대상이다.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은 "세계는 이미 문화의 시대에 들어섰다. 문화의 힘이 그 나라의 위상을 말해준다. 경제와 외교, 안보는 문화와 같이 간다. 하드 파워는 소프트 파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리즈는 ▶문화적 가치의 소중함을 사회 전반에 걸쳐 환기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관심을 고양시키며 ▶외국인에게 한국적인 면모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문화 콘텐트를 발굴하고 ▶중·일의 문화에 비춰 한국적인 문화를 보다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 주제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중심으로 찾을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 선비문화, 차, 복식, 춤과 굿, 놀이, 건축, 음식 등 생활문화를 비롯, 한글과 한지, 아리랑, 디자인 코리아, 책 읽기와 쓰기 문화(서예·전각), 문화관광과 공적개발원조(ODA)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게 탐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만을 고집하진 않는다. 기성세대에겐 문화와 전통이 정적일 수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동적이다. 신·구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트를 지향할 참이다.

문화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도 담아낸다. 집필에 참가할 추계예술대 김다은 교수(작가)는 "시민의 문화적 소양 향상이란 목표를 담겠다. 문화시민은 저절로 되거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리즈는 한국인의 문화시민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9%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문화 차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낮은 편(거부감 있음, 11.1%)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계화가 병행될 수 있는 의식적 여건이 준비돼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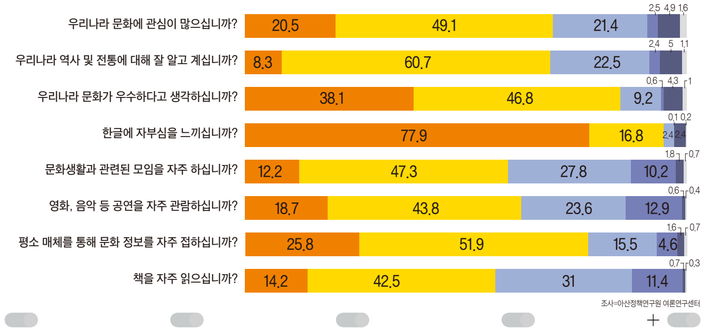
한국문화에는 동서고금이 짜깁기돼 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서 빚어내는 독특한 무늬가 한국문화다. 이제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주를 넘어서, 이웃 나라들과 구별되는 한국문화의 독자성과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계화다. 이번 시리즈의 목적이기도 하다.

한국문화 대탐사 참여자

▶문화융성위원회=김동호 위원장, 김종록 위원(중앙일보 문화전문객원기자)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김석근 인문연구센터장, 이승률 박사(인문센터 객원연구위원), 김보아 연구원(인문센터)

▶문화계=김다은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 전성태(소설가)

▶중앙SUNDAY=안성규 에디터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조사